

'83年度 全日本 小動物 獸醫學會 紹介 (4)

趙 俊 行

(서울市支部學術理事)
(淸雲動物病院 院長)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있을 86년 88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내 비둘기 경기협등에서 부족한 비둘기의 대량번식에 애 쓰고 있음으로 불원간 각 동물병원에는 비둘기 질병의 상담과 질병치료의 부탁을 받을 것이다.

이 지구상의 비둘기는 개량종까지 합치면 약 400종이 된다. 이중 야생의 비둘기는 292종으로 이들은 거의 남쪽지방에 살고 있으며 구라파나 아세아에는 15종이 그리고 일본에는 4 종류가 살고 있다.

우리들이 가끔 듣고 있는 전문을 전달하는 비둘기도 본지는 야생의 비둘기에서 사육조류화 된 것이다.

비둘기가 사육화되게 된것은 그 특징인 歸巢性이 먼 애급시대부터 인정받아 로마시대에는 군대의 통신용으로 활용한 대단히 오래된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후 각나라에서 개량을 하여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通信用, 愛玩用, 食肉用으로 구분되고 또 그 비둘기가 주로 먹는 사료로서도 곡물을 먹는 것과 과실을 먹는 비둘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둘기의 젓

비둘기의 식생활은 보통 다른 들새들과 다르다. 그들은 곤충들과 같이 영양가가 높은 것이나 나무순과 같이 보드러운 것은 거의 먹지 않는다. 이와같이 비둘기의 즐겨먹는것은 나무열매와 같이 딱딱한것으로써 새끼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엄마 비둘기는 새끼기를때가 되면 위안에 많은 지방을 저장하여 이 지방으로 먹은 딱딱한 나무열매를 소화되기 쉽게 잘 녹혀서 입으로 토해내어 어린비둘기에 준다. 이것은 사람의 젓나오는 것과 아주 다르나 이것을 우리는 비둘기의 젓이라 부른다.

비둘기의 歸巢性

비둘기는 1분간에 600m정도의 속도로 600km 쯤 떠러진곳에서도 돌아온다.

비둘기의 歸巢能力은 이새의 본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을 알아내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구한 이론이 많으나 일단 떠난 비둘기는 그 지점의 상공을 한두번 돈후 곧 자기살던집을 향하여 날아갈수가 있다.

이것은 박쥐가 磁氣를 사용하여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벽에 부딪힘이 없이 잘 나르는 것과 같이 비둘기도 이와같은 地磁氣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繁殖

숫비둘기가 發情하면 암비둘기를 취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들의 발정은 곧 알수가 있다. 멀지않아서 암비둘기도 발정하고 알을 낳을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때 보금자리를 만드는 재료는 마른나무가지나 마른풀을 넣어주면 암수비둘기는 그것을 가지고서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마른가지는 성냥개피 정도의 크기가 좋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금자리는 아주 조잡한 것이다.

보금자리가 되면 암비둘기는 2일간에 걸쳐서 2개의 알을 낳는다. 그후 낳은알은 암수비둘기가 교대로 정답게 품어서 그 알은 품은지 12일만에 부화한다.

엄마비둘기는 새로나온 애기비둘기가 소화하기 좋게 위 가까이 있는 嗉囊에서 특수한 유즙을 내어 먹이와 잘 섞어서 애기비둘기의 입에 옮겨 준다.

낳은지 얼마안된 애기비둘기는 즉시 인공적인 먹이를 먹이기에는 매우 어렵다. 적어도 부화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은것은 인공사육이 무리이다.

또 비둘기의 번식은 계절의 관계없이 진행되나 추운 겨울은 애기비둘기의 성장에 지장이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予防의 必要性

병에 걸린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항상 주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

단으로 사육되고 있는 레-스비둘기는 한번 전염성의 병이 침입하면 차차로 감염되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비둘기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의 원인은 바이러스, 細菌, 真菌, 原虫, 寄生虫등으로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예방대책도 다르다.

또 감염의 경로도 일정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집안은 비둘기나 레-스등에서 돌아온 비둘기가 병을 운반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예방처치를 게을리하면 뜻하지 않는 손실을 입는다.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계통도 알려져 있으나 모든 병에 강한 개체는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년간을 통해 정해진 계획에 예방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鳩舍의 衛生維持

비둘기의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비교적 소독약에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둘기집을 청결히 하며 정기적으로 효과있는 소독약을 사용한다. 단지 콕시디움나 기생충난은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효한 약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독약은 콕시디움의 오스테드나 기생충난에는 별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오루소계의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消毒法

항상 비둘기집의 청소에 앞서서 먼지와 같이 병원균이 날지 않도록 조심성있게 높은곳으로부터 차근차근하게 소독약을 뿌려두는 것이 좋다.

모든 배설물은 제거하고 급수기, 급식기, 보금자리반침등은 소독약 속에 담근후 잘 닦는다. 그후 비둘기집 전체에 소독약을 분무하고 건조시킨후 비둘기를 다시 넣어준다.

이와같은 철저한 소독법에 의해서 병원균뿐만 아니라 羽虫등 외부기생충의 예방도 된다.

잘된 청소는 소독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단지 소독약만을 뿌리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된다. 즉 배설물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소독약을 사용하여도 그 효과는 기대할수가 없으니 레-스퀴환후에는 꼭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함이 좋다.

予防藥의 使用法

비둘기에 있어서 그 예방약은 鳩痘와 같은 바이러스병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백신과 인축공통전염병인 鳩病(오-무病), 마이코푸라스마, 살모넬라, 헤모 루스외에 세균감염증의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역성 항균제 곰팡이성 Candida症, 아스퍼질러스 등에 유효한 항진균제, 트리코모나스, 콕시디움, 등 원충증에 대한 항원충제나 회충, 모양충, 촌충, 기관충등에 효과를 발휘하는 광역성구충제 등을 가르킨다.

현재 鳩病藥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제는 대부분 가축에 사용되고 있는것이 많으나 비둘기에 응용하기에는 그 처방이 단순하여서 혼합감염(합병증)이 많은 레-스용 비둘기의 예방약으로써는 꼭 적당하지 않으며 그약의 효과가 무효일때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鳩病(오-무病)에서 마이코푸라스마등의 세균과 합병하여 병세가 진행할때가 많기때문에 오-무病에 유효한 항생물질뿐으로서는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없다. 따라서 병의 진

단이나 유행의 상황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市販藥을 사용하여도 효과가 없다.

繁殖時期의 予防對策

건강한 새끼비둘기는 건강한 양친으로 부터 탄생된다. 가을 레-스기간, 레-스종료 후에 있어 예방대책을 완전하게 실행한 비둘기 집은 그후 교미시기에 많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

1. 교미전

교미하기 약 2주간전에 中止卵의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抗菌劑는 살모넬라, 마이코푸라스마에 유효한 것을 중점적으로 응용한다. 이때 抗菌劑外에 다른 첨가제를 병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크기의 種卵과 어린 새끼들의 생존율도 대폭 향상한다.

2. 알을 품을때

素囊乳가 트리코모나스증의 발생에 관계되고 있다. 따라서 알을 품은 후반기에는 어미비둘기가 깃보기에 건강하여도 트리코모나스 原虫이 素囊乳를 영양원으로 하여 그 증식력이 크기때문에 抗트리코모나스제(아미노니도로싸이아솔)등을 사용하여 새끼비둘기에 대한 감염을 방지한다. 그러나 이약품은 캔디다증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독사용은 대단히 위험시 하고 있다.

주로 야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일본의 레-스비둘기는 항상 트리코모나스원충의 감염될 위험이 잔재되어 있다.

ㄷ) 부화시기와 육추시기

살모네라나 다른 전염병에 의한 中止卵이 생기거나 태아가 허약하여 알껍질을 깨지 못하고 죽는 이상이 생긴다.

또 이 시기에는 레-스로 부터 돌아온 비둘기에 의해서 전염병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둘기가 돌아온후 모든 비둘기에게 広域性抗生物質을 選定하고 비타민이나 첨가제등을 합하여 준다.

새끼비둘기는 20~25日齡에 새로운 비둘기집에 옮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생기므로 때문에 상기처방으로 발병을 억제한다.

春秋레-스時期와 換羽期의 予防対策

봄 레-스는 비둘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시킬수 있는 시기이어야 한다. 레-스참가에 의해 마이코푸라스마에 감염되면 無症狀이라도 호흡기(肺·6個의 氣囊)에 염증이 과급되어 이런 비둘기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수가 없다. 때문에 레-스에서 돌아온후 오루소제로 비둘기집과 먹이통 그리고 음수기를 충분히 소독한 뒤에도 마이코푸라스마와 기타 예상되는 2차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항생물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않된다.

또 자연식 사육사에서는 알을 품은 후반에 항트리코모나스제를 줄 필요가 있다. 단지 이 製劑를 주면 비둘기의 컨디션이 이상하게 좋아져서 이약을 투약할때는 夜間飛行을 방지하기 위해 저녁에 비둘기집에 나가는 것을 중지시킴이 좋다.

봄의 레-스가 끝나면 換羽期에 들어간다. 일본은 구라파나 미국과 달리 고온다습한 梅雨期

(젖은비로 습기가 많은 시기)를 맞이하게 되니 많은 유해로운 세균·원충 기생충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모든 비둘기는 변검사를 실시하며 그해에 자란 젊은 비둘기는 鳩痘백신接種을 마친다.

젊은 비둘기들은 생후 5~6주령부터 털가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단백의 사료,정기적 종합비타민제의 급여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영양제등을 주도록 한다. 피페라진제제는 회충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양선충, 촌충, 그리고 드물게 기관충등이 검출되는적도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의해 그 기생충에 유효한 구충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않된다.

또 외부기생충은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발생 예방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바퀴벌레는 살모네라, 대장균, 포도상구균등을 전파하고 내부기생충의 중간숙주가 되기도 한다. 일본 本州에선 12월까지 비둘기집에 살수 있으므로 바퀴벌레에 대한 전문살충제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뿐나뿌레-도 살충제는 비둘기에서 유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을 레-스에선 鳩痘, 鳩病, 마이코푸라스마, 살모네라등이 털가리의 진행중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수가 있다.

특히 人獸共通傳染病인 鳩病은 6월부터 12월까지를 정점으로 하여 발생된다.

이병은 마이코푸라스마에 의해서 그 병세가 확대될때가 많다. 테드라사이클린계의 항생물질 단독으로는 다른 합병증을 억제할수 없고 치료효과가 시원치 않다.

가을레-스는 100km부터 500km까지의 레-스

가 열리는데 젊은비둘기로서 장래 유망한 Champion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운동과 주의깊은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레-스는 11월말로써 끝이 나나 이후의 검변, 김진은 대단히 중요하다.

鳩 驚口瘡

원인

비둘기의 전염병으로 가장 무서운 병이다. 곰팡이가 병원체로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強毒型일때는 一群全滅할때도 있다. 특히 장마철이나 여름 습기가 많은 시기에 잘 발생된다.

증상

입주위나 입안과 목젖에 걸쳐서 황백색의 좁쌀크기의 돋는것이 많이 생긴다. 이 곰팡이는 입안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장까지 침범한다.

치료 :

입(주둥이)부근에 좁쌀크기의 돋는것이 생기면 그 비둘기를 잡아서 입안을 잘 조사하고 이 병이 확실하면 빈셀으로 마멸시키고 H₂O₂로 잘 닦아내며 엷은 옥도정기를 발라주던지 초산은 봉으로 환부를 태워주어도 좋다.

다음 병들은 비둘기는 곧 격리하고 비둘기집에는 3%의 크레솔액으로 잘 소독한다.

비둘기 파라티푸스

원인 :

비둘기집에 쥐가 운반해온 쥐티푸스균에 의해

발병한다. 어미비둘기가 쥐똥을 물었던 입으로 새끼비둘기에게 먹이를 줄때 생긴다.

증상

어미비둘기는 감염되어도 별로 괴로워 하지 않으나 새끼비둘기의 입안을 보면 흰막이 덮여 있는것을 볼수가 있다.

치료

비둘기집에 쥐가 못들어가게 하고 어미비둘기는 클로로마이세틴 5mg을 1일 3~4회 4일간 연속 투여하고 새끼비둘기는 2mg을 투여한다.

감 기

원인

추위와 더위의 급한 변화에 의해 걸린다. 특히 겨울철의 사잇바람과 체력이 저하되었을 때 많이 걸린다.

증상

깃털이 일어서고 원기가 없어지며 더욱 진행되면 코가 막혀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치료

먼저 따뜻한 방에 수용하고 코구멍을 청결히 하고 먹이는 영양가 높은 씨를 먹인다. 또 운동을 할수없는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세네가시럽을 1~2방울 먹이고 조용한곳에 두어 안정시킨다.

설사

원인

먹는 사료에 의할때가 많다. 야채는 될수 있는대로 신선한것을 주고 계절적으로 장마철에 많다. 이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비둘기

집이 설사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증상

항문주위의 털이 변에 더럽혀져있고 또 비둘기집의 청소때 변의 상태로 알수있고 심한것은 변에 털이 섞여있다.

치료

먹이요법으로 소화성이 좋은것으로 준다. 대두를 줄이고 소맥을 늘리고 야채를 일시중지하며 비오후루민·미야리산 등은 乳兒의 1/5량쯤 준다.

식체

원인

위내의 소화작용을 돕기위한 작은 돌이나 모래가 부족하였을때 생긴다.

증상

식욕이 없어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비둘기의 嗉囊을 조사하면 돌과 같이 딱딱한 것이 잡히며 깃털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료

글리세린이나 피마자기름을 입으로 부터 소량 먹이고 嗉囊을 마사지하여 주면 경증인것은 서서히 잘 낫는다.

그러나 중증인것은 嗉囊中の 食塊를 수술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비둘기집내에 깨끗한 모래를 넣어주는 것이다.

레-스비둘기의 질병과 대책

비둘기레-스는 自由主義國家뿐만 아니라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도 대단한 행사이다. 역사

적으로는 아주 오랜 노아의 홍수때 부터 제2차 제3 차세계대전에선 군용비둘기로써 또 유럽에서는 빨지산등에서 많은 인명을 구조한 공적을 남기고 그후 보도관계의 통신수단으로서 활약하여 왔으나, 현재는 민간애호가에 의해 스포츠로써의 레-스로서 전세계적으로 즐기고 있다. 이와같이 비둘기의 사육이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둘기질병에 대한 대책은 獸醫學的分野에서 보아도 그 자료가 적은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인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질병의 원인이나 생태에 있어서는 다른 조류로 충분히 규명된것이 많아서 현대의 수의학기술을 잘 사용하면 그 해답은 어렵지않은 않다.

비둘기 질병에 대해서 獸醫技術의 적용을 계통적으로 하기위해서 日本小動物獸醫師會는 鳩病研究會를 발족시켰다.

지금 각종예방약은 이미 대개 완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약제가 약사법에 의한 일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수의사의 지시하에 사용되게 되어있고 수의사의 진단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올릴수가 없다.

현대 수의학영역에선 새로운 화학요법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수의학의 발전과 같이 비둘기의 질병에 응용되는 약제도 매년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 몇년전에 서독 어느 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비둘기가 700km나 먼 곳에서 후각으로 방향을 잡고 돌아온 사실을 시험으로 증명하였다.